

미디어술래 術來

**Media Sullae :
When Technique
Foll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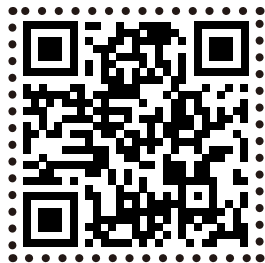
**2026
7. 16. — 8. 21.**

모두미술공간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별관 5층)

《미디어 술래 術來》는 장애예술인의 감각 체계와
디지털 신기술이 서로를 '술래'처럼 뒤쫓으며
만나는 전시입니다. '술래(術來)'는 기술이 감각을
부르고 이끌며 함께 나아가는 관계를 뜻합니다.
참여 작가들은 신체와 감각의 차이를 고유한 인지
구조로 받아들이며 빛과 소리, 진동의 언어로
번역해 냅니다. 기술이 감각을 따라가고 감각이
기술을 이끄는 이 술래잡기가 장애예술의 새로운
창작 가능성을 상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시장 안내



엘리베이터



화장실



편안한 공간



색약 보정 안경



필담



닷패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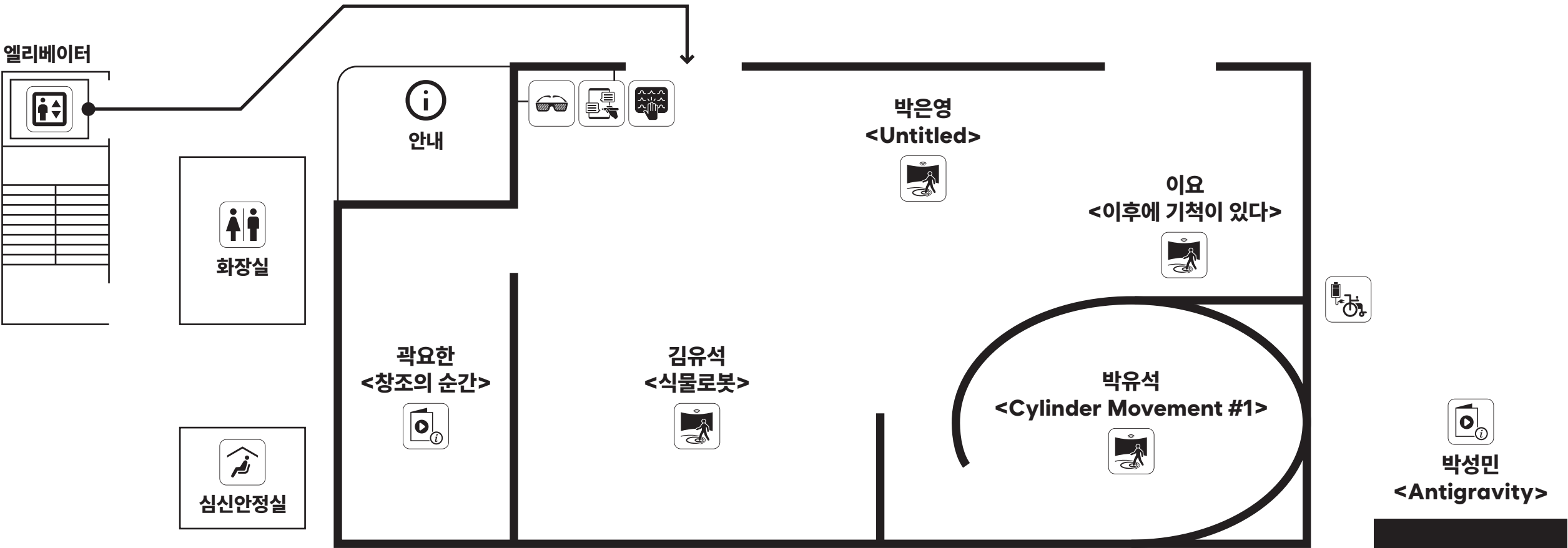
체험형 작품



영상물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전시제목

미디어 술래 術來

(Media Sullae : When Technique Follows)

참여작가

곽요한, 김유석, 박성민, 박유석, 박은영, 이요

퍼포먼스

(안무) 강혜라, (현악 연주) 공민배, 김윤세,

이현성, 장미솔

전시기간

2026. 7. 16.(목) ~ 8. 21.(금)

관람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월-토요일)

*오후 5시 30분 입장 마감

휴관일 : 매주 일요일, 8월 17일 휴관

입장료 : 무료

전시연계 프로그램 <점심반차 : 감각술래단>

전시의 감각 요소를 차(茶)와 사운드 명상으로
연결하여 바쁜 일상 속 직장인에게 쉼과 감각 회복을
제공하는 런치 웰니스 프로그램

<어린이 워크숍 : 소리-모양-우리>

소리의 진동이 만드는 무늬를 관찰하고 입체 작품으로
형상화하며 서로 다른 몸과 감각의 다양성을 발견하는
초등 대상 교육 프로그램

<아티스트 토크 : 술래들의 대화>

작가와 기획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전시 이면의
창작 과정을 공유하고, 장애예술의 고유한 감각 세계를
깊이 있게 탐색하는 아티스트 토크 프로그램

*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모두미술공간 누리집 또는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모두미술공간

본 자료의 저작권은 모두미술공간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복제, 변형, 송신을 금합니다.

미디어 술래

2026. 7. 16. - 8. 21.

모두미술공간

서울스퀘어 별관 5층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

02-760-9797